

농림수산식품부

▶▶ '축산정책관'에 경북대 권찬호 교수 임용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9일 경북대 축산학과 권찬호 교수를 '축산정책관'에 임용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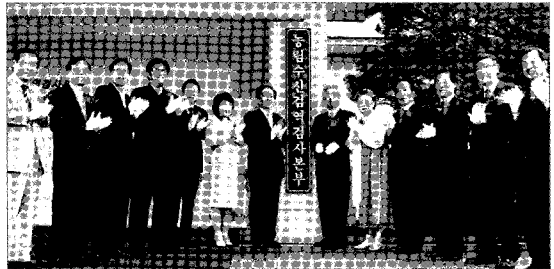
농식품부는 지난 2월 9일 '축산정책관'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민간 전문가를 임용하기 위해 3차에 걸쳐 공모절차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수차례의 공모과정에서도 적격자를 찾지 못해 고심하던 끝에 3차 공모에서 민간 전문가를 선발하게 되었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경북대 권찬호 교수를 축산정책관으로 최종 임용하게 되었다.

권찬호 교수는 평소 주변에서 워커홀릭(Workaholic)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축산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대학에서 조사료 생산 및 이용, 축산경영, 가축의 사양관리, 유기농 축산, 자원순환형 농축산업 분야에 대한 산업밀착형 연구를 해왔고,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축산분야 교육사업, 연구사업 등에도 참여한 바 있어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이다.

그는 평소 축산업이 안고 있는 전염병 문제, 가축분뇨가 가져올 수 있는 환경문제 등에 대해 깊이 고민해 왔으며, 우리나라 축산을 책임지는 자리를 맡게 된 만큼 축산업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축산정책관에 임하는 자세를 밝혔다.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출범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6월 15일 경기도 안양에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입 농수축산물 안전관리 및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비롯, 유관기관·협회·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경과보고, 유공자 표창, 헌판제막, 기념식수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서규용 장관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출범은 국경검역·방역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가축질병 발생 및 FTA 확대에 따른 시장개방 등 점증하는 정책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합출범의 시너지 효과를 살려 검역검사본부의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출범한 검역검사본부에는 방역기능 강화를 위해 '위기대응센터'와 '구제역진단과' 및 서울·용인·천안·전주·대구 등 5개 지역에 '가축질병방역센터'가 신설되었으며, 국경검역 강화, 중앙 및 지자체간 방역기능 협조체제 운영, 구제역 예방약 수급 관리 등 신규업무 추진을 위해 46명의 인력도 증원되어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대책'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번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출범을 계기로 구제역·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관리를 위한 국가방역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되었으며, 동·식물 및 수산물의 질병관련 시험연구기능의 전문화, 수출입되는 동·식물 및 수산물에 대한 검역·검사와 위생 및 안전성 관리 일원화로 국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식품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축산법 전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앞으로 축산업 관련 시설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축산업 허가가 취소된 사람은 3년 동안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농림수산물식품부는 일정규모 이상 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부화업 등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고 소규모 농가도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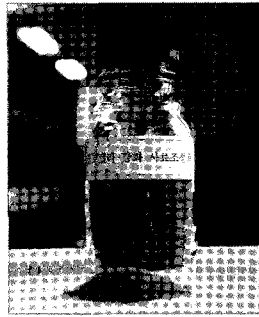
개정안은 축산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기간, 허가가 취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축산업 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축산업 허가과 관련된 중요 시설·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입출국시 방역의무를 위반해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거나 전파시킨 경우 등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축산업 허가 대상이 아닌 모든 가축 농가는 가축사육업으로 시·군·구에 등록하도록 했고 등록이 취소되면 1년 안에 재등록을 하지 못하게 했다.

농촌진흥청

▶ 클로렐라로 가축 면역성 높인다



앞으로는 가축도 클로렐라로 건강해질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청장 민승규)은 면역력을 높여 사람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식품인 클로렐라를 가축의 사료첨

가제로도 이용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했다.

클로렐라(Chlorella)는 민물성 녹조류(綠藻類)에 속하는 단세포 생물로서 단백질, 엽록소, 비타민, 무기질, 아미노산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플랑크톤의 일종이다. 현재 체내 중금속을 배출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작용 때문에 인체용 건강보조식품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능성 식품으로 사람이 이용하는 클로렐라는 회수, 안정화 농축 및 건조 등의 복잡한 제조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 축산분야에서는 사용이 어려웠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1, 2차 배양이 끝난 클로렐라를 가축에게 유용한 미생물 균주와 부형제를 혼합 발효시켜 수분을 줄여 즉시 사료 첨가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사람이 먹는 클로렐라보다 1/10 이하로 가격을 낮췄다.

이번에 개발된 클로렐라 함유 사료첨가제를 육계(肉鷄) 사료에 0.1~0.5% 수준으로 섞어 급여해 본 결과, 무항생제 처리구에 비해 사료요구율 8%, 면역력 9%, 체중 6%가 개선되었으며, 항생제 처리구 대비 사료요구율 9%, 면역력 1.8%, 체중 2%

가 개선되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클로렐라를 처리한 닭의 경우 사료요구율은 높아지는 반면 출하일은 2일 정도 앞당겨져 육계 5만수 키우는 농가의 경우 연간 600만원 정도의 수익증대 효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서옥석 가금과장은 "7월부터 가축사료 내 성장 촉진용 항생제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질병이나 생산성을 걱정하던 축산농가에 클로렐라 함유 사료첨가제 보급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클로렐라 생산 시 발생하는 클로렐라 가공 부산물을 사료화하는 연구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생산비 절감과 환경오염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난관 특이적 형질전환 닭 개발

농촌진흥청은 닭의 난관 조직에 특이적으로 녹색형광단백질을 발현하는 형질전환 닭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형질전환 닭은 녹색형광단백질유전자를 닭 배아 세포에 미세주입하고, 유전자가 주입된 수정란을 인큐베이터에서 21일간 배양해 태어난 닭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총 539개의 수정란에 녹색형광단백질(OVA-EGFP) 유전자를 주입했고 그 중 24마리의 병아리가 정상적으로 부화됐으며, 태어난 병아리 24마리 중 두 마리가 녹색형광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형질전환 닭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 동물바이오공학과 변승준 박사는 "이 방법을 이용해 녹색형광단백질 대신 사람에게 유용한 단백질 유전자로 바꾸어서 형질전환 닭을 생산한다면 사람에게 유용한 단백질을 생산하는 계란이 생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축을 하나의 의약품 공장으로 이용해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연구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여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다.

우유에서 사람에게 유용한 단백질을 함유하는 형질전환 소, 돼지 개발 관련 연구는 많은 보고가 되고 있으나, 닭을 이용한 유용단백질 생산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닭은 연간 약 300개의 계란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완전식품으로써 운반과 보관이 쉬운 장점이 있다.

계란은 암탉의 난관에서 만들어지며, 난관 조직에서 분비되는 단백질들은 겹질이 형성되기 전 계란으로 이동돼 계란 내 단백질을 구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암탉의 난관에서 외래단백질을 분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곧 인간에게 유용한 단백질을 계란을 통해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2011년 4월 22일 국제적 학술지인 「Bioscience, Biotechnology, and Biochemistry」 저널에 게재되었다.

▶▶ 6월 '월례조회'에서 난타공연 선보여

농촌진흥청은 지난 6월 7일 농진청의 6월 전직원 조회시 '난타' 공연을 통한 무언(無言)의 강렬한 울림을 통해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와 함께 구제역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국립축산과학원의 각오를 조회에 참석한 모든 이의 마음에 전달했다.

국립축산과학원 난타팀 '옥스퍼퍼먼스'는 성환의 축산자원개발부 직원간 단합을 위해 2006년 10월 11명으로 결성해 '천안시 생활체육회' 등 내외부 공연에도 초대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난타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가족개발평가과 장한수씨는 “이번 공연의 레퍼토리는 국립축산과학원의 힘찬 새로운 도약과 함께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의 확산을 난타로 표현했다면서 난타의 울려 퍼짐이 강소농 육성에도 더욱 강하게 스며들 것”이라며 모든 직원이 강소농 육성사업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 축산물HACCP기준원 발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석희진)은 지난 6월 17~18일 양일간 충남 예산 소재 리솜스파캐슬에서 ‘Jump HACCP! Together 기준원!’이라는 슬로건 하에 축산물HACCP기준원의 발전과 임직원 화합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우리원 미션과 비전을 재 공유하고, 심도있는 토론 및 논의를 통해 비전 및 중장기 발전계획 달성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의 시간이 마련되었다.



이 과정에서 축산물HACCP확대를 위한 방법, ‘Farm to Table HACCP 시스템’ 조기구축을 위한 기준원의 역할,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 축산물HACCP연구회 활동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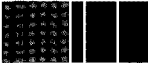
또한 임직원 소통과 화합의 어울림 축제를 통해 임직원간 서로 융화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석희진 원장은 “축산물HACCP의 확산을 위한 심층적인 토론과 임직원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축산물HACCP기준원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 소비자와 함께한 축산물HACCP 탐구생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 지난 6월 11일 서울·경기지역 초등학생과 학부모 37명을 대상으로 축산물HACCP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신나는 축산물HACCP 탐구생활’ 행사를 개최했다.

오전에는 HACCP 지정 오리가공업체 ‘이목원’(충북 음성 소재)을 방문하여 위생적인 오리가공현장을 직접 견학했으며, 오후에는 ‘진주목장’(경기 화성 소재)에서 가족사육단계(농장) HACCP 이해를 돕는 다채로운 낙농체험을 실시했다.



올해 들어 2번째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인원 모집 단계에서부터 열띤 문의가 이어졌고, 학부모와 자녀들 모두 처음 접하는 HACCP 지정업체 체험 활동에 대해 큰 흥미와 만족감을 보였다.

석희진 원장은 축산식품의 위생·안전과 직결되는 HACCP 인증제를 널리 알림으로써 소비자들의 식생활 건강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제주도로 찾아가는 기술 상담 실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 지난 6월 24일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 국제교류회관에서 2011년도 제3차 「찾아가는 축산물HACCP 무료 기술상담」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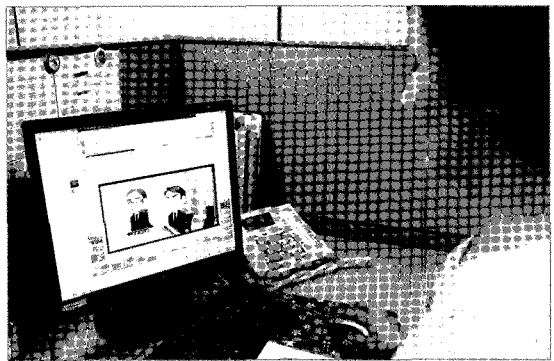
이번 행사는 제주도 지역 축산물HACCP 지정 및 지정 희망업소(농장)을 대상으로 축산물 HACCP 도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HACCP 운영상의 각종 궁금증을 해결하도록 전문 심사관과의 1:1 기술 상담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법령고시 개정사항, 업종별 시설 검토 사항, 기준서 및 관리일지 작성 요령, HACCP 지정 또는 연장 절차 등 HACCP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총체적인 사항을 행사 기간 내내 안내했다.

기준원 관계자는 이번 찾아가는 기술 상담을 통해 제주지역 업체와 농장이 HACCP에 대해 궁금했던 점이나 운영상의 애로사항 등을 모두 해결하고, 정책 제안이나 기준원에 바라는 점 등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 역량수준별 사이버 역량강화 교육 실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은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역량수준 향상을 위한 사이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조직의 미래성장을 이끌어 갈 인재양성을 위해 창조적 핵심인력 양성프로그램(PPK)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조직기반 강화·전문성 강화·자기개발 강화의 3대축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사이버 역량강화 교육은 지난 4월 실시한 개인별, 역량수준 평가결과를 심층 분석하고 개인별·직급별로 부족역량을 도출하여 23개 교육과정을 제시함으로써 그동안 자기중심적으로 운영되던 사이버교육을 역량진단에 의한 맞춤형 교육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최규진 인재개발팀장은 “인재양성은 조직성장의 근본으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부족역량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높이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한국토종닭협회

▶ **광주 · 전남지역 재래시장 방역실태 점검 및 방역교육 실시**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김연수)는 지난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광주 · 전남 지역 내 비아, 송정, 양동시장 등 재래시장의 방역실태 점검 및 방역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불시에 재래시장을 방문해 토종닭 판매점의 청결상태, 소독현황 등을 확인했으며, 철저한 소독과 일부 미비된 소독기록부 작성의 기록을 주문했다.

점검 이후 방역교육에서는 시가 종식되지 않은 시기에 헤이해지기 쉬운 방역의식을 고취시키고 시 종식 이후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재래시장 내 토종닭 판매점 관계자 모두 참석해 교육에 열의를 보이고, 철저한 차단방역을 약속했다.

▶ **'한닭' 인증위원 회의 및 위촉식 개최**

(사)한국토종닭협회는 지난 6월 28일 '한닭' 인증에 대한 공정한 심사와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종닭 '한닭' 인증위원 회의 및 위촉식」을

협회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문정진 상임부회장의 협회소개에 이어 김연수 회장의 환영사, 김춘권 위원장의 인사말, 김현우 대리의 토종닭 '한닭' 인증제 소개, 한닭 인증회의, 인증위원 위촉식 순서로 진행되었다.

김연수 회장은 환영사에서 토종닭을 소비자가 믿고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위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며, "토종닭산업 발전을 위해 육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5년 내 2조원의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한닭 인증위원 회의에서 이상진 교수는 "인증제가 첫 발을 내딛은 만큼 틀을 잘 갖춰 나가고, 인증 후 철저한 사후관리로 소비자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향후 인증회의는 안건에 따라 분기에 1~2회 모이기로 했으며 신규 인증과 인증 연장 등의 인증 심사와 한닭 인증제의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토종닭 '한닭' 인증위원 회의에서 대학 1명(단국대학교 이상진 교수), 정부 2명(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전익성 사무관, 축산과학원 가금과 강보석 박사), 소비자단체 2명(소비자시민모임 강광파 상임이사, 한국토종닭소비진흥협회 이덕영 회장), 안전위생관련 1명(반석가금진료연구소 손영호 원장) 및 본 협회 7명(김연수 회장, 문정진 상임부회장, 공동브랜드분과 김춘권 위원장, 종계부화분과 정학동 위원장, 농가분과 소삼 위원장, 계열유통분과 김동관 위원장, 김종갑 자문위원) 등 총 13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